A

ARÊTE HONORS

GREAT BOOKS-INSPIRED HUMANITIES READING

잘 쓰는 힘은,
깊이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글의 길이보다 먼저, 생각의 깊이를 기릅니다.

설득력 있는 글과 토론은 형식을 익히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제에 맞는 정확한 어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배경지식, 그리고 근거 위에 주장을 세우는 힘이 함께 쌓일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아레떼 리딩은 동서양 원전의 사상을 바탕으로 집필한 지문을 깊이 읽고, 본문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	7	490	36
LEVELS	FIELDS	PASSAGES	WEEKS
WHITE → BRONZE	철학·윤리·역사·경제·사회·과학·문화	레벨당 70지문 · 전 과정 누적	주 2회 · 레벨당 72세션

OUTCOMES

매년 John Locke Institute Essay Competition Shortlist 진출자를 배출하고,
8-9학년 학생들의 SAT Reading & Writing 700+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성과는 학생의 출발점과 학습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배울 것은 늘지만 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일곱 분야에서 미리 쌓아 둔 어휘와 배경지식은 AP와 SAT의 낯선 지문 앞에서 부담을 덜어 주고, 더 깊이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ARETEHONORS.COM

gcyedu@gmail.com · 213-214-9461

01 · 수업 구성

근거는 언제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인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문장을 짚어 답하는 훈련입니다.

01 문맥 속 어휘

단어의 뜻을 외우지 않고, 문장 안에서의 의미와 쓰임으로 익힙니다.

02 정밀 독해

핵심 주장과 근거, 인과관계, 글 전체의 구조를 읽어냅니다.

03 이해와 추론

사실 확인에서 요약, 추론까지 단계적으로 이해를 점검합니다.

04 본문 근거 확인

모든 답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본문에서 직접 찾습니다.

05 Short Response

읽은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씁니다.

06 교사 채점 · 피드백

교사가 직접 채점하고 수업에서 좋은 답의 기준을 함께 나눕니다. 학생은 리뷰를 통해 자신의 답을 다시 봅니다.

한 세션의 흐름 — Level 2 · 50분 기준



세션 길이는 레벨에 따라 45분(L1)에서 90분(L7)까지 늘어나며, 지문 난이도와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 구성이 조정됩니다.

검증과 승급

배운 것이 실력으로 남았는지, 정해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Cycle Quiz** — 7개 분야를 한 바퀴 돌 때마다 누적 평가
- **벨트 승급** —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벨트로 (WHITE → BRONZE)
- **3중 지표** — 월말 평가 · 과제 이행률 · 어휘 테스트
- **배치 확정** — 시즌 종료 시 레벨 테스트 2세션

02 · 읽기 수준

Level 1–7 · 같은 질문을, 더 깊은 글로 다시 만납니다

레벨은 학년이 아닌 **지문 난이도** 기준입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시작 레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레벨의 첫 지문은 Philosophy로 문을 엽니다.

LEVEL	난이도 · 분량	첫 지문 · PHILOSOPHY	대표 지문
○ L1 WHITE	**G4 상당** 45분 · 약 250단어	**What Is Thinking?**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P4C	The Water Cycle · Aesop's Fables · Can Animals Think? · What Are Rights?
● L2 YELLOW	**G5 상당** 50분 · 약 300단어	**Socrates and the Power of Questions** 질문의 힘 · Plato, *Apology*	Is It Always Wrong to Lie? (Kant vs Bentham) · Can Machines Think? (Turing) · Freedom (Locke)
● L3 GREEN	**G6 상당** 60분 · 약 400단어	**Plato's Cave** 동굴의 비유 · *Republic*, Book VII	Logic and Fallacies · Evolution (Darwin) · The Trolley Problem (Foot) · Two Concepts of Liberty
● L4 BLUE	**G7 · TOEFL** 60분 · 약 450단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Descartes	The Invisible Hand (Adam Smith) · Animal Rights: Singer vs Kant · Trolley Problem Deep Dive
● L5 PURPLE	**G8 · SAT** 75분 · 약 500단어	**Beyond Good and Evil**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기원을 묻다 · Nietzsche	Darwin vs Laozi: Is Nature Cruel or Wise? · Income Inequality (Piketty)
● L6 RED	**G9 상당** 75분 · 약 600단어	**Sartre and Radical Freedom**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 실존주의	Where Does Freedom End? (Mill vs 論語) · Free Speech and Its Limits · Piketty vs Hayek
● L7 BRONZE	**G10+** 90분 · 이중지문 약 750단어	**Rawls vs Nozick** 정의는 공정인가, 자유인가	AI Consciousness (Searle vs Chalmers) · Dostoevsky, *The Grand Inquisitor* · Just War Theory (Walzer) · Spinoza, *Ethics*

최상위 목표 · LEVEL 7 10학년 이상 수준의 어휘와 문장 구조, 두 지문을 맞세우는 논증의 복잡도를 다룹니다. 일곱 분야의 글을 통해 SAT·AP 고난도 독해의 기반을 완성합니다.

The Trolley Problem: Outcomes or Principles?

Trolley Problem Deep Dive · Featured Thinkers — Philippa Foot · Judith Jarvis Thomson · Jeremy Bentham · Immanuel Kant

A runaway trolley is speeding toward five workers who cannot escape, and you happen to stand beside a lever. If you pull it, the trolley switches to a side track where a single worker stands. Do you pull the lever, killing one person in order to save five? Most people answer yes. Now alter the scenario: you stand on a footbridge above the track, beside a very large stranger, and the only way to stop the trolley is to push him onto the tracks. The math is identical — one life exchanged for five — yet almost no one says they would push. Notice that your gut already answered before you reasoned, and ask yourself why.

The puzzle was first posed by the philosopher Philippa Foot in 1967; Judith Jarvis Thomson later added the footbridge. Together, the two cases expose a deep division in how humans judge right and wrong. One tradition, called utilitarianism, holds that the right action is whatever produces the most good for the most people. Its founding figure, Jeremy Bentham, argued that we should add up the happiness and suffering of everyone affected and select the option with the best total. Bentham wanted morality to operate almost like arithmetic: count the benefits, subtract the harms, and choose the highest number. By that math, five lives clearly outweigh one — so you should pull the lever *and* push the stranger.

Another tradition, however, refuses to do the math. Immanuel Kant maintained that every person possesses a dignity that may never be sacrificed for someone else's benefit. In his words, we must "so act that you use humanity ··· always at the same time as an end, never merely as a means." Pushing the stranger uses him as a tool — a heavy object deployed to stop a trolley. Pulling the lever feels different because the side-track worker's death is a tragic side effect rather than your instrument. You did not need him to die; if he stepped away, you would be glad. But you do need the stranger's body on the tracks, and that requirement, Kant would argue, treats a human being as a thing.

This distinction may explain why our intuitions split the two cases even when the numbers match. Most people sense a difference between harm caused as a side effect and harm used on purpose. A doctor who cannot save one patient because she is saving five feels different from a doctor who kills one healthy person to harvest organs for five, although the math is identical. The trolley problem is unsettling precisely because it shows that our moral instincts do not always follow a single, consistent rule.

So which view is correct — the cold arithmetic of outcomes, or the principle that certain acts are simply forbidden regardless of the result? Philosophers continue to argue, and so do engineers, because a self-driving car may one day confront its own version of the lever. Whatever you conclude, the hardest question in ethics is not just what you would do, but why you believe it is right.

KEY WORDS: utilitarianism · dignity · means · end · side effect · consequences

결과인가, 원칙인가

트롤리 문제 샘플 지문의 우리말 해석입니다. 수업은 영어 원문으로 진행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피할 길 없는 작업자 다섯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신 곁에는 선로를 바꾸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전차는 한 사람이 서 있는 옆 선로로 방향을 틉니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로 위 육교에서, 체격이 큰 낯선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야만 전차를 멈출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계산은 똑같이 하나 대 다섯이지만, 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이 따지기도 전에 직감이 먼저 답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고실험은 철학자 필리파 풋이 1967년에 처음 제시했고, 이후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육교 사례를 더했습니다. 두 사례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에 깊은 균열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공리주의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행동이 옳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 사상가 제러미 벤담은 모든 이의 행복과 고통을 합산해 가장 나은 결과를 고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다섯 생명이 한 생명보다 무거우므로, 레버도 당기고 낯선 사람도 밀어야 합니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누구에게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존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미는 것은 그의 몸을 전차를 세우는 도구로 쓰는 일입니다. 반면 레버를 당겨 생긴 죽음은 의도한 수단이 아니라 비극적인 부수 결과입니다. 옆 선로의 사람이 피해 준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교 위의 사람은 반드시 선로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바로 그 '필요'가 인간을 사물로 만듭니다.

숫자가 같아도 직관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수적으로 생긴 피해와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한 피해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섯 환자를 살리느라 한 환자를 구하지 못한 의사와, 다섯에게 장기를 주려고 건강한 한 사람을 해친 의사는 계산이 같아도 결코 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트롤리 문제가 불편한 까닭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늘 하나의 일관된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쪽과, 결과와 무관하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쪽 중 무엇이 옳을까요? 철학자들은 지금도 논쟁 중이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자율주행차가 한순간에 누구를 보호할지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것이 옳다고 믿는가'입니다.

Can Necessity Make Us Free?

Featured Thinker — Baruch Spinoza, *Ethics* (1677) · 실제 L7 수업은 대립하는 두 지문(약 750단어)을 함께 읽습니다. 아래는 그중 한 지문의 발췌입니다.

People often define freedom as the ability to have chosen otherwise. Baruch Spinoza begins with a more unsettling question: do we know why we desire what we desire? We are aware of our decisions, he argues, but usually ignorant of the causes that shaped them. A person who chooses to speak angrily may insist that the words were freely chosen, while fear, pride, fatigue, and memory have already prepared the response. Awareness of a choice is not yet knowledge of its cause.

In *Ethics*, Spinoza describes reality as a single causal order. Human beings do not stand outside it, issuing independent commands to nature. This seems to destroy freedom: if every thought and action has causes, what remains of responsibility? Yet Spinoza's account of freedom begins precisely at this point. An emotion is passive when it carries us along without our understanding. By forming a clearer idea of it, we do not abolish the chain of causes; we become less governed by confusion.

Suppose a criticism fills you with anger. If you merely suppress it, you may still be ruled by it. But if you understand why the remark wounded you and what belief you took it to threaten, your response can become more deliberate. For Spinoza, freedom is not an escape from necessity. It is the mind's growing power to understand the necessity within which it acts.

A puzzle remains. If the act of understanding also has causes, why call it freedom? Perhaps freedom is not the absence of causes but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driven by causes we do not grasp and acting from an understanding of them. Whether that redefinition is convincing is the question Spinoza's readers must answer.

한국어 해석

우리는 흔히 자유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능력'이라 여깁니다. 스피노자는 더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결정은 의식하지만, 그 결정을 빚어낸 원인은 대개 모릅니다. 화난 말을 스스로 골랐다고 믿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자존심, 피로와 기억이 이미 그 말을 준비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의식하는 것과 그 원인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는 세계를 하나의 인과 질서로 보고, 인간 역시 그 바깥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 원인이 있다면 자유와 책임은 어디에 남을까요? 스피노자의 자유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끌려갈 때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한다고 인과의 사슬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혼란에 휘둘리는 정도는 줄어듭니다.

비판을 듣고 화가 났을 때 억누르기만 한다면 여전히 그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왜 아팠는지, 어떤 믿음이 위협받았다고 느꼈는지 이해한다면 더 숙고된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필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필연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원인이 있다면, 왜 그것을 자유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독자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스피노자의 원전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 집필한 수업 예시입니다. Source ideas: Spinoza, *Ethics*, Parts I & V (Project Gutenberg, gutenberg.org/ebooks/3800)

05 · 읽기 확인

읽은 만큼,
논리적으로 말하고 씁니다

질문은 내용 이해에서 출발해 관점 비교, 논증 평가, 현실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ETHICS · 관점 비교

How would Bentham and Kant disagree about the footbridge case?

두 사상가의 주장을 본문 근거로 비교합니다.

ETHICS · 근거 기반 서술

Should a self-driving car sacrifice one to save five? Use both thinkers' ideas.

주장 · 본문 근거 · 이유를 연결해 생각을 전개합니다.

PHILOSOPHY · 개념 이해

Why does Spinoza doubt that awareness of a choice proves freedom?

선택을 의식하는 것과 그 원인을 아는 것의 차이를 짚습니다.

PHILOSOPHY · 논증 평가

Can understanding the causes of anger make a person freer? Defend your view.

필연과 자유를 둘러싼 주장과 반론을 검토합니다.

배경지식은 이렇게 쌓입니다 — 7분야 순환 × 나선형 심화

1 Philosophy · 2 Ethics · 3 History · 4 Economics · 5 Society · 6 Science · 7 Culture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L1 Can Animals Think? → L2 Animals: Do They Have Rights? → L4 Animal Rights: Singer vs Kant
"거짓말은 언제나 나쁜가?"	L1 Telling the Truth → L2 Is It Always Wrong to Lie? → L4 Trolley Problem Deep Dive → L7 Just War Theory (Walzer)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	L2 Freedom (Locke) → L3 Two Concepts of Liberty → L6 Free Speech and Its Limits (Mill) → L7 Rawls vs Nozick

수업의 중심은 언제나 읽기입니다.

Short Response는 읽은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깊이 읽을수록 주장에는 내용이 생기고, 글에는 힘이 생깁니다.

ARETEHONORS.COM
gcyedu@gmail.com
213-214-9461